



▶ **Evaluation**

견적, 평가(estimation, valuation)

▶ **Ex Gratia**

법적 책임 없이 [호의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 from favour

▶ **Exposure Hazard**

어떤 건물이 주변 또는 인접 자산의 화재에 노출될 개연성

▶ **Extra Work**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그러나 추가비용을 수반한다.

이에 반해 비록 추가공사로 이해되지만 additional work는 계약서상의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를 뜻한다.

▶ **Face Value**

액면금액, 액면가

▶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 예비조사

→ 입찰시 입찰자가 입찰참여이익을 연구, 조사하는 대표적인 조사 방법

▶ **Field Order**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최소한 계약변경지시

▶ **Field Work**

현장작업

▶ **Final Acceptance**

계약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최종 수락행위. 이때 발급

되는 확인서를 Certificate for Final Acceptance 또는 Maintenance Certificate,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 등으로 불리운다.

완공이라 함은 Substantial Completion을 뜻하며, 현장이 발주처로 인도됨과 동시에 하자보수가 시작 된다. 이 경우의 인도를 Provisional Hand-over 또는 Initial Hand-over라 하며, 하자보수가 종료된 후의 인도를 Final Hand-over라 한다.

시공자측의 최종인도(Final Hand-over)란 발주처의 최종수락(Final Acceptance)이 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Final Completion이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Final Acceptance는 발주처의 최종지불(Final Payment)과 이행보증의 해제(Release of Performance Bond)로서 확인되며, 이로써 계약쌍방간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그러므로 FIDIC의 종전규정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시공자의 Claim은 Maintenance Certificate의 발급 이전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Final Statement

하자책임 완료증명서(Defects Liability Certificate)

또는 하자보수증명서(Maintenance Certificate)가 발급되고 난 뒤 일정기간(FIDIC에서는 56일)내에 시공자는 △수행공사금액 △계약상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기타 금액이 기재된 최종명세서 초안(Draft Final Statement)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게 되는 바 이 초안의 내용에 관해 감독관이 동의할 때 그 초안을 Final Statement(최종명세서)라 한다.

통산 최종명세서의 제출 직후 시공자는 채무변제확인서(Final Settlement Certificate)로 불리우는 Discharge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Fire 관련 용어

- Firebreak : 화재확산 방지용 공간 또는 지대
- Fire Endurance : 내화기간
- Fireproofing : 내화자재
- Fire Protection : 화재예방 자재, 수단, 활동
- Fire Resistance : 내화력

▶ Fixed Limit of Construction Cost

건설공사의 최대 허용비용. 통상 Construction Budget으로 불린다. Ⓞ



한눈에 보는 세계사와 유명 인물

카노사의 굴욕

10세기 후반부터 교회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봉건사회의 확립과 함께 가톨릭교회의 권위는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세속적인 것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세속 군주의 서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던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에 의해 폐위를 당하자, 교황은 로마 회의에서 황제의 파문과 폐위로 인해 교회는 물론 제후와 신하들까지도 황제를 등지고 교

황에게 갔다. 그러자 당황한 하인리히는 북이탈리아의 카노사 성에 체재 중인 교황을 찾아가 카노사 성 밖의 눈 속에서 3일간 서서 굴욕적으로 사면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황은 독일 제후와 동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